

가정상담

2016

8

통권 396호

ISSN1227-7568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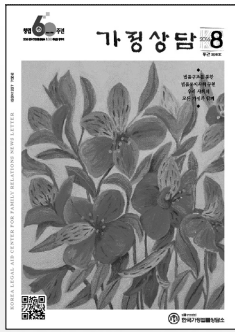
7월 9일부터 10일까지 더 케이 호텔에서 '제41회 나 너 그리고 우리, 행복찾기 부부캠프'가 진행되었다. (관련내용 16면)



비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가 7월 23부터 25일까지 강원도 옥계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열렸다. (관련내용 19면)



지난 7월 29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본소와 LH공사의 업무협약식이 있었다. (관련기사 30면)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4 • 이 달의 메시지

‘가족’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6 • 특집 I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II ②

9 • 특집 II |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제6강

16 • 가정폭력상담실

19 • 교육부

23 • 인터넷 상담

24 • 백인번호사단 소송구조

26 • 결혼과 인생(162) 영화 이야기

비밀은 없다 _ 김용언

28 • 비혼모 가정을 위한 캠프 후기

29 • 법률구조체험교육 참가 후기

30 • 상담소 소식

32 • 지부소식

33 • 상담통계

34 • 좋은 책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이 달의 메시지



‘가족’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8월 27일(월) 상담 제1일이다. 9시부터 기다리던 여인이 제1호로 접수되었다. 상담하러 온 사람은 모두 일곱 명이었으나 여섯 건 밖에 접수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물겨운 호소는 나를 울려 주었다.’

- 1956년 상담소 첫 날 일지

‘이 날 보고된 상담건수는 총계 7백 건으로 그 중 축첩이 193건으로 으뜸을 차지하고 혼인 예약 불이행이 114건으로 둘째 번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건이 3백 건에 달하고 있는데 상담건수의 배우자를 살펴보면 일반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군인들이 제일 많다’

- 1959년 9월 11일자 <여성민보> ‘여성법률상담소 3주년 기념식 성대’ 기사 중

상담소 60주년의 해를 보내면서, 상담소 문을 열고 처음 상담을 시작한 날의 일지를 펼쳐보는 마음이 각별합니다. 상담소는 1956년 8월 27일 첫 상담을 시작으로 창립 첫 해인 1956년에는 336건을 상담했고, 2015년도에는 74,468건을 상담했으니 무료 222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60여 년 간 본

부에서는 1,469,900건, 전국 29개 지부에서는 2,2115,901건을 상담해 총 3,585,801건의 법률구조사업을 해 왔습니다. ‘60주년’ 간단한 말이지만, 상담소 60주년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가족의 역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 가족문제의 첨예한 현실이 드러나는 곳이 가족문제를 최일선에서 상담하는 상담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정 내에서의 부부 갈등, 가족 구성원 간 갈등, 나아가 안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현장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소에서는 가정문제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정문제의 생생한 현장을 보고 들으며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가족법 제·개정운동 그리고 다양한 사회교육, 국민들의 의식화를 위한 교육사업, 가족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구와 홍보, 출판 사업에 이르기까지 상담소의 사업영역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가정문제의 변화의 양상을 짚어보는 강연과 토론회 등을 여는 것 또한 상담소 본연의 업무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가족’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일은 상담소로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1950년대 말 60년대 초반 가족갈등의 으뜸 요인은 ‘축첩’ 이었고, 당시 최초의 여성 집회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배우자 외도가 가정파탄의 요인 가운데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여전하나 한 편으로 이에 못지않게 가정파탄의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추상적이며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민법 제840조 6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매년 이혼 사유 일순위로 상담소 통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두 세대가 바뀌는 동안 우리 사회의 가정이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인구문제의 과제가 ‘산아제한’이었던 것에서 이제 ‘출산장려’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정문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해결책이나 가족정책에 있어서도 문제적 양상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미흡함과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지난 6월 22일 ‘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 심포지엄을 통해 가족의 변화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가족의 현실, 가족의 문제는 곧 우리 모두의 현실이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가족의 구성원이며 가족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결혼,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도 변화합니다. 바람직한 변화도 있고, 때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놓치기도 합니다. 급격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가족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 것인지 성찰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0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정과 함께 해온 상담소는 그 역사와 성취한 바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모든 가정, 가족구성원들의 평등과 복리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II*

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 (2)

한국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 상담통계에 나타난
한국가정의 변천사

가족의 과거, 현재, 미래

가족의식의 변화와 남성의 변화

한국가족, 다양해지고 있는가?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현황과 비전

복지국가의 가족정책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법의 역할 및 과제

통해서 개인 삶의 경험, 집단 삶이 반영되는 역사적, 사회적 구성체이다. 건강한 가족의 특성은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과 사회 상위체계의 가치체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가족을 연구할 때 사회역사적인 맥락에서 가족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특히 어떤 내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아왔다.

상담소에서는 60년 동안 다양한 사업을 해왔는데, 나름대로 분석 해보면 과거에는 주로 구조적인 문제와 도구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에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왔다. 현재는 부부관계의 내용도 좀 더 동반자적인 부부관계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법적인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가족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말하고 있는 가족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족, 다양한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족이 과연 같은 것인가 하는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대단히 아름다운 그림들이고, 이 같은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이미지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의 과거, 현재, 미래

정 현 속

상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정은 사회구성원인 보통사람들의 일상에서의 다양한 삶이 형성, 발전되는 곳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 본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째 심포지엄 ‘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하여 게재한다.

갖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족은 어떤 구조여야 하는가 그래서 다양한 가족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가족구성원이 누구인가’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혼란이 있고, 최근에는 ‘애완동물은 과연 가족인가’ 하는 이야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가족이란 공공재로써 뿐만 아니라 사적인 지표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회적 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 가족을 본다면 과연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급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어느 시점의 가족을 주제로 논의하고 있는 것인지 다르다고 본다. 사실 가족연구는, 재미있을 것 같아 시작했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이들이 많은 주제이다. 왜냐하면 가족은 친밀감이 큰 주제이지만 정서적 주제이기도 하고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심지어는 정치적인, 어떤 신념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가족에 대한 사적공간이라는 이미지도 여전히 남아있으며 시간과 공간에 따른, 다양해지는 가족의 실체를 우리가 포용하지 못하는, 이런 점들 때문에 가족을 이야기할 때 어떤 공통된 이야기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변화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작업은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의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변화를 이야기 할 때는 인구학적인 변화에서 시작 하는데, 사실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이 다르고, 상담소 통계에서도 보았듯이 성별, 연령, 결혼기간,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농경사회에 태어난 아버지 세대와 산업화사회에 태어난 우리 세대, 정보화사회를 살아가는 자녀들 간의 간격 등을 보면 같은 가족이지만, 사실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또 솔직히 가족을 연구하고 있지만 가족 내의 다이내믹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런 연구들이 얼마나 객관적인 결과로써 타당성이 있는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듯하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가족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는 크게 세 가지는 문제가 된다고 보인다.

하나는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불일치, 또 하나는 변화에 접근하는 인식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변화의 정도를 과장하는 문제 이 세 가지이다.

그리고 가족변화의 특징가운데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구조적 변화이다. 다양한 인구혁명, 가족의 정의가 유연해지고 다양해지는 것,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년대 이후에 1, 2차가 한꺼번에 오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면서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즉 모든 변화가 한 시점에서 공존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그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이 저출산과 고령화이다. 실제 지금 인구는 계속 늘고 있지만 인구증가율은 떨어지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30대, 40대, 50대가 가장 많은 종형의 구조를 보이고 있고 점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전 지구적인 혁명, 가족전쟁, 생애과정의 혁명, 성적인 혁명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혁명이라 짧은 기간 동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 가운데 먼저 가족에 대한 인식을 보면서 변화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너무나 양극화하거나 정서적인 논쟁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서 ‘이혼이 자녀에게 부정적인가 혹은 긍정적인가?’ 이런 식의 양극화가 아니라, 사실은 이혼이 글로벌한 과정에서 어떤 혁명이라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우리가 더 질문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일 때 이혼이 자녀들에게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가’ 하는 식으로 논의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가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우를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우리와 같이 압축적 성장을 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기 때문에 역사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조금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또 가족의 변화에 대한 과장적 측면도 있다. 언론

에서 언급되는 통계를 보면 혼인기간 20년 이상 된 사람들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 20년 이상 결혼한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기 때문에 이혼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들이 실제로 통계의 오류라 할 수 있으며 이혼은 사실 전 연령층에서 고루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가정이 다른 조직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세대관계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발달적인 과정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어느 시점에 끊어 읽느냐에 따라 가족의 양상과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혼을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본다면 어느 시점에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다른 상호작용 특성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은 사회제도 이상이다. 가족은 제도화된 영역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결정화되지 않은 영역도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통계청 데이터 가운데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가족관계나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식의 통계를 가지고 가족을 논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해도 전 연령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측면도 있다. 현재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정책을 보면 사랑은 없어도 되고 일단 결혼만 하면 국가가 지원해준다는 식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배우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이다. 부부 갈등영역에서 1위는 성격이고 이 때문에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 그러므로 결혼율이 감소하느냐 동거율이 증가하느냐 보다 사람들이 도대체 결혼을 무엇으로 인식하느냐,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와 이런 결혼생활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1인 가구를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가족은 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1인 가구는 그

냥 가구라고 생각한다. 가족은 특별한 종류의 가구나 집단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는 가족적인 어떤 패키지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은 경제적인 것, informal group, 지속성, 친밀성을 추구하는 정도로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결혼은 다른 제도만큼이나 확실하게 이어지지만 그 모양은 다양해질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가족 구조도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 가정(양육) 병행이나 고용경제 불안을 이야기하고, 일본의 경우 만혼과 비혼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결혼의 장애물에 대해 우리는 경제적 부담을 언급하고, 일본 사람들은 행동의 자유제약을 이야기 한다. 이러한 통계만 보면 우리에게 결혼의 전제조건은 경제이다. 그러므로 이 통계만 보고 정의를 내리면 우리에게 ‘결혼은 경제적 조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두 사람이 애정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지만 무언가의 목적을 위해서 결합하는 형태’라는 생각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령화, 세계화, 혁명적 변화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인 과제로서 우리 재량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독립변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가족의 역할, 가치 그리고 사람들이 가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평균가족이 아닌 개별가족,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가족의 상호작용을 더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하기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률적인 지원은 물론 이것에 관한 데이터를 만들어 우리 사회에 제공해주는 역할도 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발표를 마친다. 왜냐하면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런 역할을 상담소에서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마음읽기와 정신적 성숙 - 분노의 의미와 기능

김 병 후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낼까요?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알아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고차원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실생활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유추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경우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타인이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고 단정하고 상대를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근거로 상대방의 지식이나 가치관 같이 외부로 나타나는 것을 갖고 유추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의 마음상

태를 어떤 기전에 의해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 추측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과학자들은 '마음 이론' 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 읽기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프로이드와 발달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이론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예측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상대의 행동을 이 이론을 적용하여 타인의 마음을 읽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모사이론' 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정하여,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적으로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입하여 말과 행동을 모사하는 것입니다. 이러

** 올해 본소의 무료공개강좌인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는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원장의 강의로 2월부터 12월까지 (8월 휴강) 10강에 걸쳐 진행된다.

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 ‘거울신경세포’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때, 상대방의 얼굴표정에 감정이 나타납니다. 거울신경세포는 상대 얼굴에 나타나는 얼굴표정을 거울처럼 자신의 뇌에 복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마음상태와 감정을 읽어 낸다는 것입니다. 거울신경세포는 영장류부터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장류인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의 손의 움직임을 거울신경세포로 복제하여 그 원숭이의 의도를 읽어 냅니다. 유인원과 현생인류로 진화 하면서 거울신경세포의 기능의 점차 확산되어 인간은 상대의 몸짓 뿐 아니라 얼굴표정까지 복제하여 상대의 마음상태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행위도 하지만 나와 타인을 구분하여야 하고, 상대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대체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90년대 초, 이탈리아의 파르마 대학에서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던 중 거울신경세포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숭이의 가장 큰 특징은 손이 매우 많은 역할을 하고 아주 발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으로 치면 언어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Broca's area)에 해당하는, F5라는 전두엽 운동신경이 원숭이의 손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우연히, 원숭이가 손을 움직이지도 않는데 뇌에 신경자극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어 연구해 본 결과, 한 원숭이가 손을 움직이는 것(감각)을 보고 다른 원숭이가 그 손의 움직임을 복제하여 자신의 뇌에 복제 시키고, 그에 따라 상대방 원숭이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울신경세포는 포유류 중에서 영장류부터 존재합니다. 거울신경세포는 더 정교한 사회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뇌 장치입니다. 정교화 된 사회에서는 구성원의 행동과 그에 따른 의도를 파악하는 것, 즉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원숭이 사회에서 다른 원숭이 손의 움직임을 안다는 것은 그 원숭이의 행동과 의도를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에 다른 원숭이 손의 움직임에 민감한 것입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손 뿐 아니라 다른 신체부위도 복제를 합니다. TV에서 축구선수가 공을 차는 것을 보았을 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축구선수가 공을 찰 때 사용하는 근육이 해당하는 부위를 거울신경세포가 자신의 뇌에 복제하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움직임 뿐 아니라, 얼굴 표정도 복제를 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 동물이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표정을 짓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상대방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원숭이는 손으로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지만, 인간은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으로 자신의 상태를 더 정교하게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표정은 자동차의 방향지시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에 방향지시등이 없다면 상대방이 어디로 이동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표정이 없다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공포영화에 나오는 귀신이나 좀비와 같이 표정이 없는 존재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표정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사회에게 표정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표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거울신경세포입니다.

변연계는 감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뇌의 기관입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생활하는 파충류는 매우 작고, 정교한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일수록 그 크기가 커 집니다. 여러 가지 감정을 복합적으로 느끼는 인간의 경우, 변연계가 가장 큼니다. 변연계는 여러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이 얼굴에 표정이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대의 그 표정을 읽어 내는 것이 거울신경세포입니다.

결과적으로 거울신경세포의 역할 중 하나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자동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의 표정을 읽고 이를 자신의 뇌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상대의 표정에 대한 해석은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그 표정을 지을 때 드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내 마음을 통해 유추하는 것이기에, 정확히 그 사람의 감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와 나는 같은 표정에 같은 생각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 정확히 상대의 감정을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물

어보아야만 합니다.

거울신경세포의 또 다른 역할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아는 것을 뛰어 넘어 상대의 감정을 이입하여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줍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거울신경세포가 그 사람의 고통을 보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과 친밀한 사람일수록 더욱 강렬하게 느껴 집니다.

자! 그렇다면 거울신경세포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이나 고통을 느끼게 되었을 때, 어떻게 내가 느끼는 고통과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울신경세포는 대부분 뇌의 좌측반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고통을 느낄 때에는 뇌의 우측반구에 있는 거울신경세포가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측 뇌는 나와 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인간은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지만, 다른 동물과 비교해보면 이는 진화적으로 큰 성과입니다. 포유류나 원숭이 같은 경우, 거울을 보고 그 모습이 자기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즉 자아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우, 2세가 지나면 자기와 타인을 구분할 수 있고, 창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피함을 느끼는 것은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이러한 자기인식 능력이 없습니다. 침팬지, 돌고래, 코끼리 그리고 까치 등이 이러한 인식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동물에 비해 새끼를 오랫동안 기르며, 친밀한 모자관계를 맺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인식은 잘 하지만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발달하였지만,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타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뇌가 타인과 자신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기 위한 실험 중, 자신의 얼굴사진과 유명인의 얼굴사진을 겹쳐보이도록 했다가 다시 분리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때 피실험자의 뇌는 자신의 얼굴사진과 유명인의 얼굴사진이 겹쳐질 때 우측반구가 더 활성화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인간의 뇌 우측반구가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

는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지만, 뇌에 있어서는 그 작업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실생활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살면서 부모자녀사이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껴야 하는 경우에도 자녀인 타인과 자기의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다는 행위를 하는데 자녀는 심적 고통으로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성숙함의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즉, 상대방을 얼마나 이해하는가가 그 사람의 성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 갈등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내 입장만 내세우는 대신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한다면, 그 갈등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내가 화난 것만 생각할 뿐, 상대방이 화가 난 것은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상대의 관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동적으로 이해합니다. 아는 사람의 아픔은 자동적으로 느끼고 삽니다. 예전에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알지 못하는 먼 나라 사람들의 고통에 둔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외국에서 발생한 쓰나미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는 공감 능력이란 성숙한 인간만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고등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울신경세포가 발견된 후에는 뇌의 진화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공감능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 답은 애착의 호르몬에 있습니다. 사랑의 근간이 되는 애착호르몬과 거울신경세포 이 둘이 서로 관여 하여야만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인간의 진화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유동물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어울려 살게 되고, 거울신경세포가 발달되면서 그 타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유기적인 사회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상대 이해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고 나도 상대방을 이해해야만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누나가 동생이 욕실 사용 후 온수 보일러를 끄지 않는다고 화를 내어 갈등이 촉발됩니다. 동생은 이 일 때문에 누나가 싫어지고 대화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상황에서는 동생도 누나가 욕실 사용 후 화장 솜을 치우지 않는다고 화를 내어 싸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즉 양측 모두 맞는 말이지만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누나에게 온수보일러를 끄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이 사용한 화장 솜을 버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동생에게는 사용하고 버려놓은 화장 솜을 치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온수보일러를 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이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만 주장한다면 누나와 동생이 서로 갈등을 빚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누나가 화장 솜을 그 즉시 버리지 않는 것과 동생이 온수보일러를 사용 후 곧 끄

는 것은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사람의 뇌에 그렇게 인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상대의 성향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누나가 화장 솜을 치우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동생이 공격적으로 그것을 비난하면 치우고 싶은 마음이 더 없어지게 됩니다. 동생도 온수보일러를 끄는 것을 습득하는 것이 가능할 순 있지만, 누나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비난하면, 온수보일러를 끄는 행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굴욕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그냥 옳다고 말하는 것 중에서, 사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물건을 거기서 사지 말고 여기서 사라는 단순한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들을 때에는 “당신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하는 말은 안 듣고, 나랑 싸우자고 하는 거야?” 라고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을 때, 타인의 마음에 대해 알아야하는데, 타인의 마음은 결국 타인의 정서 상태입니다. 그 타인의 정서 상태에 대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옳고 그름에 대해 이야기 하면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대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관계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지만, 딸이 아버지의 기준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지만, 고등학생인 딸이 저녁 늦게 파티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사랑하지만 딸의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들이 혼처를 정하는 것, 또 이슬람 극단주의 사회에서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부모가 딸을 죽이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아

마 생각해본 적은 있지만, 그것을 늘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내 마음이 어떤지,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담자들을 상담하다보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서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속상함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오래전에 외도를 하였고, 아내가 이를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다시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한 부부갈등이 있었고, 상담을 하던 중 밝혀진 사실은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사업으로 바쁘고, 외도까지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아내가 자신을 싫어하는데 억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십년간 부부로 살아왔지만, 서로의 속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 관심이 있으면서도 이를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후, 이 부부는 같이 하는 취미활동을 즐기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해 흘려보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배우자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것,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말하지 않고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대해 많은 것을 추측하지만, 확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면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 추측하여 단정 짓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부부 역시, 외도문제가 없었더라면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외도가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는, 이를 통해 부부 상담을 받는 행위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부문제를 해결할 때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풀어지지 않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

의 문제인 경우, 자신이 문제를 알기 어렵고,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찾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서로 시시비비만을 가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 사례가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했던 경우라면, 이번에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서 부부갈등이 심화된 경우입니다. 남편이 매우 자상하고 아내에게 잘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아내뿐만 아니라 회사여직원에게도 자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가족도 아닌 직원에게 남편 소유의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반면,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소유의 오피스텔이고 아내에게도 잘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잘 해주는 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가 잘 해주는 것이 점점 당연해 집니다. 주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아내는 자신에게는 이전처럼 잘 대해주지 않으면서 회사직원에게만 잘 해준다고 불만을 제기하지만, 그 시기 남편은 이미 아내에게 주는 것에 지친 상태가 됩니다. 지치면 그 상대를 떠나 새로운 사람에게 잘 해 줍니다.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직원에게 지치면, 그 사람과도 아내와의 관계처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 잘 해주는 것이 매우 익숙한 사람이지만, 문제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문제는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과 본인이 문제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점입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자기주장을 하기 힘든 환경이었고, 자기주장을 할 수 없었던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에게 잘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타적이어야 한다고 교육받아왔습니다. 이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이타적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다보면, 이타적인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이타적인 사람들이 점점 고립되

게 되고, 우울과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의 남편 역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해주려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와 관한 건도, 아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이 회사여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임대를 해 준 것 이라기보다는, 직원이 싸게 빌려 달라고 요청했을 때 남편이 이를 거절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남편의 문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만 불공정한 관계가 되면 사람들은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무엇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지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러한 관계에서 오는 불편한 마음을 보지 않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에 갈등이 커진 것입니다.

비단 이 경우 뿐 아니라 우리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는 분들에게 왜 우울한 이유를 물으면 많은 경우 그냥 우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담을 하다보면 그 이유가 하나씩 나타납니다. 본인이 우울한 이유를 그 동안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경우, 즐거운 일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 우리의 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뇌의 기능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비가 오면 비를 맞지 않는 곳으로 피하도록 하는 것 모두 뇌의 기능입니다. 동물은 먹이와 안전이 있으면 행복하지만, 인간은 이보다 훨씬 복잡한 문화, 사회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가생활을 즐기고, 여행을 하고,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는 것 등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우리의 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자동적으로 주어진 일과를 수동적으로 처리하며 보냅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담자 중에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는 분 중에, 직업적으

로도 인정받고 가정도 화목하고 문제가 없는데, 삶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의무감만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행동 없이 타인을 위한 삶만 산다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하더라도 직접적인 즐거움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꼭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할 때 적당히 한 끼를 때우지 말고 그 시점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것,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 먹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도 자신을 존중하고 기분 좋게 하는 일이고,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과 가족의 마음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운 아들의 모습을 추구합니다. 아들의 적성이나 의사에 관계없이 아들을 반강제로 의대에 입학시킵니다. 아들은 경제학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고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면서 방황 끝에 도박과 마약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들은 아버지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했고 아들을 사랑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아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 아들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들의 모습을 사랑한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아들의 모습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방황하다가 마약과 도박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뒤에는 아버지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버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버지는 자신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잘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자녀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를 단정하지 말고 자녀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스스로도 자

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 하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부모가 이를 속단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여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아내는 외도가 끝난 뒤에도 남편을 의심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아내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옆에 누가 있는지 대답하지 않으면 아내는 화를 내고 남편을 비난합니다. 아내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남편의 마음을 배려할 여유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이 문제를 제기하면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다시 비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외도의 당사자가 참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생활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경우도 관계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외도로 상처받은 아내의 마음은 백번 이해가 가지만, 부부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된 당사자는 일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상처받은 사람의 불안함에 대해 이해하고 불안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즉 궁극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고통 받은 만큼, 자신을 행복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매우 생산적인 요구이고 성공확률도 큼니다. 그러나 불행한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고통 받은 만큼 상대방도 고통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 불행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하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이상 비난과 공격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어느 정도 피해자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잘못된 만큼 더 잘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를 초기 상처 받은 상황에서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가끔 이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는 10년 가까이 주말도 없이 일하는 바쁜 남편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남편

에게 이를 호소했지만, 남편은 일 때문에 아내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외로움을 호소하다가 지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닿은 외국에서 온 소꿉친구인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과 같이 살고 싶은 것이지, 그 남자와의 사랑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담 중 남편은 이러한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자신이 아내의 외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문제를 시인하고 아내를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진정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외도의 피해자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더라도 이것이 두 사람의 미래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상대방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집착하고 갈등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거울신경세포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추측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거울신경세포를 통해 자동적으로 아는 것에 더하여,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고유정보를 더하여 교정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성숙한 마음의 형태입니다.

대학생 딸이 술에 취해 새벽 두 시에 귀가했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러한 행동을 용납하기는 어렵지만 딸이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 정보를 더하면,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딸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딸이 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야단친다면 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전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숙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배우자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낀다면, 여러분이 그만큼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가까이 있는 가족 또는 지인 중에 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마음이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소통이란 무엇인지, 눈과 귀, 몸과 마음으로 하는 소통에 대해 배우고 익혀

- 일 시 : 2016년 7월 9일 ~ 10일
- 장 소 :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
- 참석자 :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탁자 부부 17쌍과
자녀 7명을 포함 모두 41명
- 강 사 : 이서원(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사회복지학 박사)
정윤경(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정지혜 · 한은선(미술심리치료전문가)
- 진 행 : 차연실 · 이지현 상담위원 외 자원봉사자 4명

I. 프로그램

1. 개회식

차연실 상담위원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개 및 본소 부부캠프의 취지를 전달하였다.

2. 첫째 날 저녁강의

(1) OPENING

이서원 소장이 현재 부부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 보자고 제안하며 특강을 시작하였다. 핸드폰 충전 상태에 빗대어 표현된 부부상태 중 본인이 생각하는 ‘요즘 우리 부

부의 상태’를 아내끼리, 남편끼리 모둠을 이루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선택지 중 1번은 방전 상태로 가장 최악의 상태이고, 2번은 같이 살지 말지 위태로운 상태, 3번은 아이들 때문에 사는 상태, 4번은 완전히 충전된 상태로 좋은 부부 관계의 경우이다. 이 활동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두 부부의 사례를 뽑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2) 우리 사이, 좋은 사이 부부 사이 : 부부, 멀고도 가까운 사이

이서원 소장은 첫 번째 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사례에 대하여 아무리 옳은 소리, 좋은 말을 해도 전하는 방식이 부정적이면 상대방은 그 내용까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하면서, 내가 말한 결과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고민하고 또한 내가 들을 때는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두 번째 남편이 자녀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아내와 자녀 모두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부의 사례에 대해서는,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맞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 것을 본 기억이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이의 상처를 이해하고 풀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족이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제안하였다. 먼저 그때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본 뒤 진심을 다해 아이에게 사과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도 정식으로 사과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감정은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와 사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첫날 강의를 마쳤다.

3. 둘째 날 오전강의

(1) 우리 사이, 좋은 사이 부부 사이 : 부부, 한 발짝 다가서기

정윤경 교수는 의사소통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꺼내며 둘째 날 강의를 시작하였다. 소통을 하려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표현하려는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의사소통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관계도 달라진다. 좋은 의도와 좋은 표현, 좋은 의도와 나쁜 표현, 나쁜 의도와 좋은 표현, 나쁜 의도와 나쁜 표현 등 4가지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두 쌍의 부부씩 모둠을 이루어 각각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야기해보고, 네 가지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부부의 경험을 이야기 나누었다.

1) 의사소통

의사소통을 할 때는 표현하는 방법과 의도가 맞아야 한다. 내가 표현한 방식이 좋은 표현인지, 나쁜 표현인지 판단하는 것은 상대방의 영역이다. 따라서 소통이 안 될 때 점검할 것은 내 마음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만, 표현은 상대방이 판단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

정윤경 교수는 청혼할 때 하는 말을 예로 들면서, 좋은 표현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명령조, 지시, 협박, 억박지르는 것, 충고는 나쁜 방식이다. '나하고 결혼해줄래?' 라는 말처럼 제안하고, 요청하고, 부탁하는 말로 해야 한다. 상대방과 함께 살고 싶은 내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청혼할 때는 누구나 가장 기분 좋은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2) 소통방법 - 눈으로 소통하는 방법

소통방식에 있어서, 사람은 눈을 통해 사람과 소통한다. 각 부부가 서로 눈을 마주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부부가 대표로 눈으로 소통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자, 정윤경 교수는 눈빛만으로도 부정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는 점과 반대로 고맙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눈빛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많은 남편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눈빛만으로도 전달할 수 있기에, 부부가 각자 이야기를 하면서 꼭 상대방의 눈을 쳐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후 부부가 3초간 서로의 눈을 마주보는 시간을 가졌다.

3) 소통방법 - 귀로 소통하는 방법

귀로 대화하는 것은 단순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핸드폰을 하며 건성으로 듣는 것은 소통이 아니기에 마음으로 같이 들어야 한다. 말로 하고, 들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4) 소통방법 - 몸으로 소통하는 방법

우는 아이를 위로하고, 등을 토닥여주는 방법을 예로 들며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 중 몸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편과 아내라면 몸으로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은 부부만의 특권이기도 하다. 몸으로 소통하는 방법에는 안아주고, 스킨십 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을 대신해줄 수 있고, 쓰레기를 버려주는 등의 방법도 있다.

5) 소통방법 - 마음으로 소통하는 방법

상대방의 마음을 넘겨짚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마음을 표현하려면 앞에 나왔던 소통방식들을 전부 사용해야 한다. 모든 방법으로 표현을 잘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방식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고 강조하면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4. 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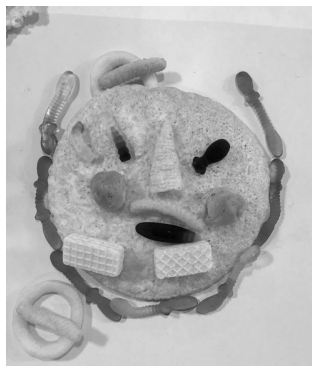
-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여행」

이번 부부캠프에서도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여행”이라는 주제 하에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 영·유아 프로그램

▶ 강사: 정지혜(미술심리치료전문가)

정지혜 미술심리치료전문가는 보육과 안전이 우선시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첫째 날에는 ‘안녕! 반가워’ 활동을 통해 자기를 소개하고 친밀감을 형성한 후, ‘시원한 바람아’ 활동을 통해 감정의 이완과 발산을 경험함으로써 창의적인 자기표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왔고, ‘맛있는 그림’ 및 ‘알록달록 탕탱 점토’ 활동을 통해 놀이를 통해 성취감과 자율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힘을 합쳐 그리자’ 활동을 통해 집단 응집력을 증진시켰고, ‘손가락 미술’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통한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촉진시켰으며, ‘고마운 우산!’ 활동을 통하여 성취감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감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도왔다. 참석한 영·유아들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미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였고, 미술작업과 신체놀이의 요소가 함께 구성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2) 아동 프로그램

▶ 강사: 한은선(미술심리치료전문가)

한은선 미술심리치료전문가는 자기 내면의 다양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첫째 날에는 ‘서로 알아가기’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환영받는 분위기 조성으로 집단 내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고 미술 표현에 대한 흥미를 증진하도록 돕는 시간을 가졌다. ‘나의 부채’ 활동에서는 매체를 탐색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이완과 해소를 경험할 수 있었고, ‘푸드 아트’ 및 ‘점토 만다라’ 활동에서는 먹을 수 있는 재료와 점토 등 매체를 충분히 탐색하며 이완과 해소를 경험하고 스스로 떠오른 이미지를 통해 감정을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둘째 날 협력 작업인 ‘모자이크 벽화 협동’ 활동에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집단 응집력을 증진하였고, ‘핑거페인팅’ 활동은 자유롭게 흥미로운 작업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하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나의 우산’ 활동을 통해 집단 내에서 지지와 격려를 증진하도록 도왔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전문가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보다는 참석한 아동들 스스로 계획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개별 뿐 아니라 집단 전체가 의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II. 정리

이번 캠프를 통해서 참가자들은 표현 방식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고,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소를 통한 소통방식에 대해서도 점검해볼 수 있었다. 참가자들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그동안 부부간에 쌓여있던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깨고 서로에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표현을 해줌으로써 행복감을 느끼는 부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차연실 상담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

- 일 시 : 2016년 7월 23일(금)
오전 9시 ~ 7월 25일(월) 오후 5시
- 장 소 : 강원도 옥계 한국여성수련원
- 참가자 : 비혼모 44명, 자녀 42명, 애란네트워크 직원 13명,
상담소 직원 2명, 상담소 실습생 8명,
탁아지원자 10명 등 총 119명

□ 프로그램 개관

1일차 7월 23일(토)

「해변 물놀이」

참가자들은 해변에서 자녀들과 모래놀이, 수영 등을 즐기면서 서울에서 강원도 옥계까지 4시간의 버스 이동시간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었다. 상담소에서는 해변 물놀이를 위해 그늘막, 돛자리, 모래놀이 세트, 튜브를 지원하였다.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 강사 : 조은경 상담위원(본소)

해변 물놀이와 함께 진행된 법교육에서는 자녀들의 연령

별로 참가자들을 3그룹(36개월 미만 영유아, 미취학 아동, 취학아동)으로 나누어 이틀(23일~24일)에 걸쳐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강의와 개별 면접 상담을 진행하였다. 강의에서는 주로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등 비혼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 밖에도 비혼모들 중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카드 빚, 은행 대출, 핸드폰 요금 연체 등의 생활고로 인한 채무와 관련한 상담시간이 있었고 파산·면책에 대한 강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레크리에이션」

▷ 강사 : 이찬희 부소장(한국웃음연구소)

저녁식사 후,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4팀으로 나뉘어 초성퀴즈, 종이컵 탑쌓기, 가위바위보 게임, 연상게임, 리액션 게임 등을 하였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 사이에 어색함과 긴장을 풀고 서로 친밀해 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가장 높게 가장 먼저 종이컵 탑을 쌓은 팀이 이기는 종이컵 탑쌓기 게임을 통해 쌓았다 무너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성공과 실패의 감정들을 느꼈다. 더 나아가 참가자들은 가족들이 함께 응원해 주고, 서로 도우며 탑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통해 성공과 실패의 감정을 혼자가 아닌 가족이 함께 응원하고

공감하며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강사는 과거 알콜중독, 자살시도 등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나누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를 참가자들 모두가 외치게 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2일차 7월 24일(일)

「가족소통 체험활동」

참가자들은 원하는 체험활동 장소에 따라 두 팀으로 나누어 각각 천곡 자연동굴과 참소리 박물관을 견학하였다.

「천곡 자연동굴 견학」

천곡동굴은 용식동굴로 동굴 내에 다양한 모양의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천연기념물인 황금박쥐의 출현으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참가자들이 관람하였다. 비록 황금박쥐를 보지는 못했지만 동굴을 처음 경험한 참가자들은 동굴내의 차가운 온도에 놀랐고, 참가자들 모두 동굴 내부의 자연이 만든 기이한 형태의 종유석과 석순 등 관람하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참소리 박물관 견학」

참소리 박물관을 관람하는 참가자들은 축음기의 발전 과정과 전구의 발명에 대한 해설을 듣고 여러 가지 축음기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박물관 내의 영상실

에서 오페라의 일부를 관람하며 축음기에서 시작된 현대 음향기술의 발전 과정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레포츠 체험 및 해변 물놀이」

참가자들 중 바나나 보트 탑승을 원하는 사람들은 바나나 보트 탑승 체험을 하였다. 시원한 바다 바람과 바닷물을 맞으며 바다 위를 날아가는 듯 가는 바나나 보트 위에서 참가자들은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과 스트레스를 바다에 날려 버리는 듯 환호했다. 바나나 보트 탑승 이후 참가자들은 해변에서 수박과 음료수 등의 간식을 나누어 먹고 수영과 모래놀이를 하며 자유롭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엄마를 위한 댄스테라피」

▷ 강사 : 최정아 소장(트리인마인드 연구소)

저녁식사 후, 엄마들은 '댄스 테라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자녀들은 '공작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여 참가자 전원이 큰 원을 그리며 가벼운 댄스를 추었고, 두 사람이 짝을 지어 균형 맞추기 동



작 등 다양한 몸동작을 통해 몸과 정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가졌다. 잠시지만 자녀들과 떨어져 엄마들만의 시간을 갖는 동안 엄마들은 자녀들을 돌보며 가졌던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다며 좋아했다.

「자녀를 위한 공작체험」

▷ 강사 : 최수연 미술치료사 (트리인마인드 연구소)

엄마들이 댄스테라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들은 연령별로 3개 반(36개월 미만 영유아, 미취학 아동, 취학아동)을 나누어 전문 미술치료 강사의 지도로 공작체험에 참여하였다. 뽀로로 가방만들기와 팝콘나무 만들기, 아이클레이로 오리만들기, 몰드와 아로마오일을 이용한 석고 방향제 만들기 등 연령별로 다양한 만들기 체험활동을 하였다. 이 활동은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과 성취감,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친구들과의 관계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아이들은 활동시간 내내 매우 즐거워하였다.

3일차 7월 25일(월)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 강사 : 박연재 주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릉권주거복지센터)

이 강의는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비혼모 가정이 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대출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자세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참가자들은 주거관련 정보를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 참가자들의 한 줄 소감

1) 아이들이 캠프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번 캠프도 성공적

- 2) 정말 힐링 제대로 하고 갑니다.
- 3) 아이와 좋은 추억 만들고 갑니다.
- 4) 다들 휴가라고 떠나지만 우리 가족만 못 가는 것 같았는데 캠프에 오게 되어 기쁘다
- 5) 밥을 먹을 때나 해변에서 놀 때 아기 타아를 해주어서 한결 수월했다. 먹는 것, 자는 것, 노는 것 모든 면에서 다 만족스럽다.
- 6) (학령기 반 가족을 보며)이답에 저도 우리 OO가 자라서 캠프 또 올 수 있겠죠? 그때 힘들었던 옛날 이야기하면서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7)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시설, 음식, 타아 모든 면에서 좋았다. 또 오고 싶다.
- 8)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너무 좋고, 가기 싫다. 아기를 키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바나나보트가 너무 재미있었다.
- 9) 아이들이 있으면 집에서 꿈쩍도 못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다.
- 10) 법률 교육을 여러 명에서 들으면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점이 있어도 얘기하지 못하는데 반을 나누어 진행하고 개별상담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 11) 아기 봐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샘들에게 맡길 때는 미안했는데, 봉사자분이 봐주니 편하게 맡겼어요.
- 12) 우리 입장에서 편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준 것 고마워요.

□ 캠프에 참여했던 사회복지사들의 평가

- 1) 아이가 어려 함께 캠프를 떠나거나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가정이 많았는데 바쁜 일상에서 탈출하여 힐링하고,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 2) 여름에는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야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아이에게 바다 구경을 시켜주었다는 만족감이 높았다.
- 3) 잠깐이지만 아기를 봐주어 항상 아기만 챙기는 엄마들이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타아에 대한 만

족감이 굉장히 높았다.

- 4) 뽀뽀하게 돌아가는 일정이 아니라 자유시간이 많아서 좋았다.
- 5) 자원봉사자들과 수련원 직원들이 친절하게 엄마들을 대하는 모습, 아기를 봐주고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에서 평등하고 귀하게 대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6) 엄마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유대관계가 강화되고 심리적으로 지지가 된다. '나도 힘이 있다'라는 역량이 강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음)
- 7) 아기가 어린 엄마들은 학령기의 자녀를 둔 가정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서로 친하고 서로의 아기를 챙겨주는 모습을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 8) 몇 년 전에는 서로 임신해서 배불러서 봤었는데 이제는 학령기가 된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에서 만나서 옛날 얘기를 하며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린 엄마들이 안쓰러워 대신 아이를 안아주거나 이렇게 해보라고 말해주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다.
- 9) 학교 여름방학이 끝나면 어디 갔다 왔는지 서로 자랑하는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위축될 수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 아이에게 무언가를 해주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고, 아이의 입장에서 여러 경험을 함으로서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
- 10) 아이를 대하는 엄마의 모습을 서로 관찰하면서 자신의 양육방법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좋은 양육방법을 공유하며 서로가 롤 모델이 되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11) 평소에 상담을 통해 파악하지 못했던 엄마들의 생활 모습이나 아기를 대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양육코칭을 하거나 개입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부모교육이나 사례관리에 반영될 수 있다.
- 12) 정해진 스케줄과 시간을 엄수하는 집단 캠프 활동을 통해 시간 스케줄과 규칙을 지키는 것을 익히고, 알게 하는 효과가 있다. 개별의 상황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이런 계기를 통하여 자기 통제감이 향상될 수 있다.

- 13) 평소에 법률 상담 등 여러 서비스가 있음을 정보제공했음에도 소극적이고 뭐든지 괜찮다고 했었던 엄마가 이번 법률상담을 통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상담 장소와 상담자가 가까이에 있고, 쉽게 만나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캠프에 와서 상담을 하니 마음을 열고, 속 얘기를 꺼낼 수 있었고 답답했던 문제가 해결되어 속 시원하다고 얘기하였다. 내년에도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게 바로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의 효과적이고, 접근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케이스이라고 여겨진다.

□ 참가자들에게 필요한 지원 및 바라는 점

- 직장에 나갈 때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 인지나 양육비 청구소송에 관한 지원이 좀 더 보편화 되었으면 좋겠다. 시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안내를 해주지만, 시설에 들어오지 않고 혼자 자녀를 키우는 비혼 모들은 이런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 정리

강의가 끝난 후 진행되었던 설문조사 결과, 비혼모 가정이 겪고 있는 법적·경제적·제도적·심리적·사회적 시선 등의 어려움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비혼모 가정을 위한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외에도 비혼모와 비혼모 가정의 자녀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해 나가는데 아직도 많은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느꼈다.

조은경 상담위원



친정조카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부모를 모두 잃었고, 이에 조카의 할아버지인 제 친정아버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사망한 오빠 내외는 빚이 많았고 조카가 유일한 상속인이었습니다. 이에 친정아버지가 조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친정 아버지마저 노환으로 쓰러져 의식불명상태에 빠졌습니다. 법원에서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필요한 서류들이 누락되었다며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친정아버지는 현재 법원의 명령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일 법원이 정한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을 수 없어 조카에게 오빠 내외의 빚이 모두 상속되어 버릴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정 기간을 연장하는 등 그 절차를 지연시켜 사건 관련 당사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인인 친정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는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보정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정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친정아버지가 조카에 대한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조카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을 다

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미성년후견인변경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변경 심판 절차가 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알린다면 한정승인 심판청구 사건은 미성년후견인이 변경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 미성년후견인이 변경되면 새로운 후견인은 소송절차수계절차를 밟은 후 상속한정승인 심판 절차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민선 변호사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외도한 남편에 대해 이혼 등 결정

법률구조 2015-250

담당 : 백중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4세)와 피고1(남, 32세)은 2014년 11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결혼 초 원고는 피고1에게 내연녀 피고2(여, 31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1은 원고에게 다시는 피고2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후로도 피고2와 계속하여 만남을 유지하며 외박을 일삼았다. 임신 중이던 원고가 통증을 느끼고 피고1에게 연락하였을 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원고는 남동생의 도움을 받아 겨우 입원할 수 있었다. 수술날짜가 잡혀 짐을 가지러 집으로 간 원고는 집에 함께 있는 피고1과 피고2를 보았고, 충격에 빠져 있는 원고에게 피고1은 더 이상 같이 살면 뭐하겠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또한 출산 후 조리원에서 퇴원한 원고가 집으로 가자, 피고1은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고 알려주지 않아 원고는 친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원고에게 피고1은 계속하여 이혼을 종용하였고, 원고는 피고1과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부산가정법원 2015. 10. 15.)

1. 원고와 피고1은 이혼한다.
2.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1은 1,000만 원, 피고2는 500만 원을 2015. 12. 31. 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

우 각 미지급원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1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5. 10.부터 2034. 3. 16. 까지 매월 말일에 60만 원씩을 지급한다.

5. 피고1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매월 2, 4주 토요일 14:00부터 일요일 17:00까지

나. 매년 여름·겨울방학기간 중 각 7일간

다. 매년 설과 추석연휴기간 중 설 또는 추석연휴기간 1회(협의하여 정한다)

6.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게임에 빠져 불성실한 생활을 하다가 연락을 끊은 남편에 대해 이혼 등 결정

법률구조 2015-287

담당 : 문대근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29세)와 피고(남, 39세)는 2007년 8월 혼인 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여, 9세)과 사건본인2(남, 7세)를 두고 있다. 피고는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할부금을 갚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일용직으로 일하며 중간에 쉬는 날은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을 하였다. 육아문제와 생활고에 지친 원고

와 피고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고, 피고는 2012년 10월 원고와 함께 못살겠다며 시댁으로 가버렸다.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돈도 없어서 친정에서 돈을 빌려 생활을 해나가야 했다. 2013년 2월 피고는 다시 잘 해보라며 집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루 종일 게임만 하였다. 이후 원고는 LH공사로부터 월세가 계속 밀려 계약이 해지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사건본인들과 함께 친정으로 가게 되었다. 원고는 친정에 사건본인들을 맡기고 새벽 6시부터 12시간씩 공장에서 일을 하였지만, 피고는 여전히 불성실하게 생활을 하였다. 더 이상 피고를 참을 수 없던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와의 연락을 끊어버렸고, 원고는 피고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아내와 자녀를 학대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한 남편에 대해 이혼 등 조정

법률구조 2015-294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7세)와 피고(남, 49세)는 1997년 6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여, 18세)과 사건본인2(남, 16세)를 두었다. 피고는 화가 나면 원고를 폭행하였는데, 1996년 6월경에는 집 안에 있던 행운목을 뽑아 휘두르며 안방 문을 나무로 찍어 문을 부수는 일이 있었다. 피고는 원고 뿐 만 아니라 사건본인들도 폭행하였는데, 2011년 10월에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 사건본인1의 배를 발로 찼으며, 2013년 5월 초에는 사건본인2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기도 하였다. 또한 2015년 6월경에는 사건본인1의 목을 부엌칼로 찌르려고 하는 등 피고의 폭행은 날로 심해졌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2011년부터 경마에 빠져들었고, 이

때문에 사건본인들의 교육보험을 해약하고 많은 빚을 지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위하여 2013년 3월 주차 정산소에 취직하였는데,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월급마저 가져갔다. 결국 원고는 사건본인들과 기본적인 생활마저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강제조정 (서울가정법원 2016.1.1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서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한다.
3. 피고는 2016. 2. 15.까지 현재의 주거지에서 퇴거한다. 만일 위 기일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1일 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5. 사건 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6. 1. 22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60만 원씩을 매월 22일에 지급한다.
7. 피고와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은 2016. 1. 15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서로 협의하여 실시한다.
8. 원고와 피고는 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9.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10.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비밀은 없다

감독 이경미

출연 손예진, 김주혁, 김소희, 최유화, 신지훈



뉴스 앵커 출신 종찬(김주혁)은 경상도 대산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받는다. 선거를 15일 앞둔 유세 첫날, 아내 연홍(손예진)은 중학생 딸 민진(신지훈)이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아 불안해진다. 민진은 예전에도 말썽을 부린 전적이 있고, 또 모든 약점이 이슈화될 수 있는 예민한 선거 기간인 만큼 실종 수사를 확대하지 말자는 선거 캠프의 판단에 연홍은 분노한다. 딸이 남긴 노래, 일기장, 읽지 않은 메일 등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미옥(김소희)과 예전 담임 손소라(최유화) 등을 차례로 만나며 연홍은 지금까지 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선거 날씨는 코앞으로 다가오고, 연홍은 점차 폭주한다.

〈비밀은 없다〉의 언론시사회 당시, 그냥 ‘영화가 재미없

다’ 라든가 ‘실망했다’ 정도의 평범한 반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눈 씻고 찾아봐도 좋은 점이 안 보인다’ 라며 아주 격렬한 악평을 쏟아 붓는 쪽이 있었다. 몇 가지 이유를 떠올릴 수 있다. 영화 홍보 플랜을 짤 때, 중반 이후의 중요한 스포일러를 감추려다보니 마치 딸의 실종이 정치의 흑막과 관련이 있고 그 안에서의 배신과 협잡이 주된 스킬의 원천인 것처럼, 적어도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포스터를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남자들의 ‘진한’ 정치 이야기(이러테면 〈내부자들〉 같은)를 상상하며 영화를 보러 갔던 입장에서, 남자들이 곧 커튼 뒤로 사라지고 여자들이 무대 중앙을 차지한 다음 자신의 어린 딸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 역시 자각하게 되는 엄마의 무시무시한 모험담에 당황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눈 뒤집어진’ 여자들의 처절한 절규를 그토록 낯설고 불편하게 느낀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국영화에서 그려졌던 남성과 여성의 역할, 또는 가족의 사랑이라든가 가장의 책임감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에 얼마나 익숙해져있었는지를 반증하는 예라고도 볼 수 있겠다.

무엇보다 이 엄마, 연홍의 정체성이 대다수 관객들에게 아주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연홍은 경상도 출신 남편과 결혼한 전라도 출신 여자다. 연홍은 그때까지 자신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인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선거가 시작되고, 후보와 그 측근들에 관련된 모든 조건들이 이슈화되면서 그녀가 전라도 출신임을 ‘감쪽같이 속였다’며 주변에서 수군거릴 때, “어휴 뭐 죽을 죄 졌어요?”라고 노물거리고 물어보며 그녀의 얼굴을 뻔히 들여다보는 경상도 남성들에 둘러싸였을 때 연홍은 뭔가 부서져 내렸음을 깨닫는다. 그때까지 남편 옆에서 예쁘게 웃으면서 상냥하게 인사하고 선거 캠프 관련자들에게 먹일 수 십 인분 김밥을 너끈히 준비하는 음식 잘하고 내조 잘하는 여자, 힐러리 클린턴 같은 영부인이 되는 게 꿈이었던 여자는 남편을 통해 대리 성취하려던 자신의 야망이 이 선거에서 완벽하게 배제되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균열은 딸의 실종 앞에서 남편을 비롯한 캠프 구성원들이 보이는 태도에서 빠르게 진전된다. 연홍은 그 순간에서야 자신이 (딸처럼) ‘왕따’였다는 걸, ‘영부인’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경상도

땅에 정착하며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려왔다는 자부심이 허상에 불과했음을 깨닫는다.

결국 분노한 연홍의 입에선 “이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못 믿겠어!”라는 불신의 비명이 터져 나오고, 눈을 희번덕거리며 자기 손등을 가위로 찌고 시뻘건 눈으로 밤새도록 이메일함을 뒤지면서 집요하게 딸이 남긴 단서를 쫓던 그녀는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 예정된 끝을 향해, 어쩌면 이미 짐작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을 어떤 결말을 향해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맹렬하게 질주한다. 스스로가 누구인지,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가장된 행복 속에서 평온하게 살던 여자가 잃어버린 딸을 찾아 나서고, 그 딸이 견뎌야 했던 지옥 같은 나날이 부모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참혹한 진실을 맞닥뜨린다. “여보, 우리 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착한 애가 아니었는지도 몰라”라는 연홍의 고백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부모가 아니었는지도 몰라”라는 고백이기도 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날 닮아서 공부머리가 없다며 딸을 과소평가했던 엄마는 뒤늦게 발견한 ‘악마 새끼’ 같은 딸의 어떤 면모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 딸이 악마가 되어갔던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고, 그리하여 딸을 대신하여 또 다른 악마의 역할을 자임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등장하는, 연홍이 가장 두려워했을 그 질문은 딸과 어머니의 관계에 대해 지금껏 한국 영화에서 보아왔던 대사 중 가장 복받치는 질문이기도 하다.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 ● ● 고 맵 습 니 다

2016년 7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심무순, 이병주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곽성환, 김경민, 김영주, 김태주, 류은아, 문석빈, 박수열, 박은정, 송명호, 유정아, 이영임, 이지선, 이혜민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김진아, 이남진, 이승주, 전성배, 정득성, 천정환 변호사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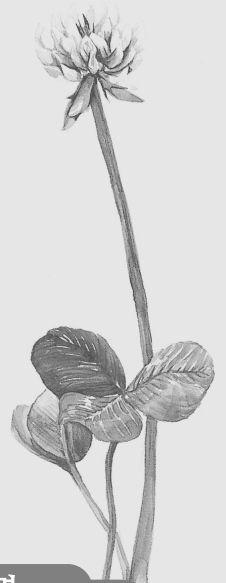
• 학생 자원봉사

윤혜정, 정주은, 이현지, 남보라, 전승민, 이도현 님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나들이’에 다녀와서

본소에서는 지난 3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간 본소와 용인 에버랜드에서 비혼모 가정을 위한 캠프를 진행하였다.
캠프 참석자들의 소감을 싣는다.

-영**

오늘 오전에 오리엔테이션은 참여 못하고 나를 사랑하기 프로그램부터 수업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슨 꿈을 꾸며 내가 나를 소중히 하여야만 남도 나를 소중히 생각해 주고 아이 또한 나를 존중 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누구의 엄마로 생각하고, 삶에 생활에 지쳐 나를 돌아 볼 시간조차 없었는데 이번 계기로 누구의 엄마가 아닌 하나의 ‘나’로 돌아보게 되었네요. 게다가 웃음치료를 받는데 소통의 문제에 대해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요즘 내 생활에 치우쳐서 아이와의 소통도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가지고 늦게나마 온 에버랜드에서 엄마들과 이야기도 해 보고 아이와 힐링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김**

워킹맘으로 살아가면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싱글맘’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혼자 아이를 양육하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 아니, 우리 생활을 위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떼어 놓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늘 아이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미안한 마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봄소풍 그리고 가정법률상담이 같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 보고 신청했고 아침 일찍 준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이랑 함께 있어야 했기에 듣지는 못했지만 아이가 웃고 떠드는 모

습을 보니 행복했습니다. 에버랜드에 오니 아이가 마냥 신나하는 웃음소리!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와 저에게 이런 꿀 같은 달콤한 봄소풍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올 해로 9세. 이제 3학년이 되는 아들에게 집이 아닌 이런 멋진 곳에서의 1박2일은 너무너무 크고 기쁜 선물이었어요. 형제 없이 엄마랑 둘이 지내는 생활에 늘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아이라, 집을 나서면서도 기대에 발이 땅에 닿을 새도 없이 폴짝 뛰어 나섰더랬죠. 네 살 즈음에 에버랜드에 왔었기에 아홉 살의 이*에게 거의 새로운 추억이었어요. 운이 좋았던지 정신없이 놀고 난 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와 형아, 동생, 초등학생 3명과 엄마 셋이서 날이 새도록...(새벽 2시^^) 이야기와 놀이를 하며 잠드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놀았구요. 알람 없이 번쩍 일어난 아이들은 비가 온 뒤의 신선한 공기를 아는지, “공기 좋다. 실컷 마시자.”하며 산책길을 돌았구요. 엄마들은 커피와 일상의 이야기들로 더 많이 힐링이 되었어요. ^^ 이*와 엄마에게,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엄마들, 외로웠던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값진 선물 주셔서 감사해요. 잠드는 시간도 아까울 만큼 행복했어요. 이*는 스스로 “일기 꼭 쓸 거야.”라고 노는 내내 즐거워했어요. 이런 추억 주셔서 감사해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법률구조체험 교육 소감문

● 교육일시 : 2016. 7. 13. 목 오전 10시

● 교육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이 민 영 강신중학교 1학년

김 서 연 강신중학교 1학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주최하는 법률구조체험의 시작은 홍보영상 시청이었습니다. 홍보영상에는 법률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권혁재 공익법무관님이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난 뒤, 온라인상에서 익명이라도 타인을 함부로 비난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김에라도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체험의 마지막 순서로 친구들이 준비한 모의재판도 보았습니다. 이 모의재판이 법률구조체험 중 가장 인상에 남았습니다. 모의재판은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가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을 했다면, 가해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의재판을 통해 재판에 대하여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재판이 마지막으로 3심까지 갈 수 있다는 것과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률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짧지만 알찬 법률구조체험이었습니다.

양 서 윤 강신중학교 1학년

저는 법률구조체험교육 중 모의재판에서 검사 역을 맡았습니다. 실제 검사복을 입고, 아이들 앞에서 모의재판을 하니, 실제로 제가 검사가 된 것 같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모의재판을 직접 하면서 느낀 점은, 재판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 알 수 있었고, 재판이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모의재판 준비과정도 부담스럽고 힘들긴 했지만, 모의재판이 끝난 뒤,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 보람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오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법률구조체험의 시작으로, 영상시청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된 내용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생겨났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였습니다. 영상시청 시간이 끝난 뒤, 공익법무관님이 직접, 한 온라인게임 사례를 통해, 온라인 상 명예훼손에 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후, 모의재판을 보았는데, 모의재판에 우리 학교 친구들이 직접 출연하여 즐겁게 시청하였습니다. 모의재판은 간략하였지만,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법률구조체험을 통해, 저도 나중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 희 진 강신중학교 1학년

체험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순서로 가정법률상담소 홍보영상을 본 뒤에, 이곳에서 상담하시는 선생님께서 다시 한 번 가정법률상담소가 하는 역할과 일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정말 멋진 일을 하는 곳이라는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 뒤에, 공익법무관님께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내용은 이러한 이유로 처벌을 받을 때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공연성은 많은 사람들이 해당 문제를 알게 되는 것이고, 특정성은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 저 또한 다른 친구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친구들이 직접 준비한 모의재판을 보았는데, 친구들이 검사, 판사복을 입고 모의재판을 하니 실제 재판을 보는 것 같아 신기하였습니다. 특히, 재판의 주제가 제가 관심이 있는 학교폭력에 관한 것이어서,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러한 체험이 있으면 꼭 다시 오고 싶을 정도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소,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법률복지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체결

지난 7월 29일 본소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본소에서 업무협력 협약(MOU)을 맺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본소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효과적인 법률상담과 독거노인, 비혼모, 한부모 가정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분야는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 및 주거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상호 홍보 협력 및 공동사업 활성화, 상담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및 활용, 법률적 허용 범위 내에서 양 기관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상호 교류 등이며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본소 박배희 소장과의 이해숙 총무부장, 조경애 법률구조 제1부장, 조은경, 복미영 상담위원 그리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동철 이사(주거복지본부장), 백경훈(주거복지기획처장), 김경철(주거복지기획처부장), 염재현(LH강서권주거복지센터장), 양지수 차장, 유지완 차장, 박세진 과장, 박정연 대리 등이 참석하였다. 본소는 이번 협약으로 가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에게 법률구조와 주거복지의 혜택이 더욱 확대되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사진 2면)

전화상담 자원봉사자 재교육 및 모임

지난 7월 6일 본소 전화상담 자원봉사자들(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심무순, 이병주)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세 가지 질문'을 주제로 열린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석영중 교수의 강의를 들은 후 점심식사를 겸한 모임을 가졌다.



인문학 주제 직원 재교육 실시

지난 7월 6일 본소 강당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세 가지 질문'을 주제로 직원재교육이 있었다. 석영중 교수(고려대 노어노문학과)를 초빙하여 열린 이번 강의는 상담소 전 직원 및 본소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본소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인간심성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심리적 통찰력으로, 특히 영혼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20세기 소설문학 전반에 심오한 영향을 주었다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소에서는 인문학 전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폭넓은 사고와 감수성을 확장함으로써 상담가로서의 자세를 갖추



는데 도움이 되도록 법률을 비롯한 다양한 방면에서 정기적인 직원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계방학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2016년 7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 본소에서의 하계방학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이 진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은 본 소의 법률구조사업을 이해하고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실무지식을 함양하는 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족문제와 공익,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번 실습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년 홍유정 학생이 참여하였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임상실습 및 지도교수 본소 방문

2016년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4주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실습이 본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소의 사회복지 임상실습은 법학과 사회복지학의 접목을 통하여 가정문제에 대한 법률적 시각을 정립하고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 실천기술과의 접목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론으로는 개별상담 및 가정문제 예방 프로그램의 참관과 개입을 통하여 본소의 법률구조사업을 이해하고 임상사회사업가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번 실습 참가자는 하지은(4학년)이다.

실습기간 중인 7월 18일에는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실습지도 교수가 본소를 방문하여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및 차연실 상담위원(본소 실습지도자)과 본소의 법률구조사업 취지, 사회

복지학과 학생들의 교육방향, 발전적인 실습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교육부에서는 7월 28일 김병후 원장의 강의로 “전이감정과 부모세대와의 갈등”이라는 주제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의에는 총 67명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부모자녀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강사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법률구조체험교육

본소에서는 지난 7월 13일 강신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교사들(136명)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법률구조제도와 가족법개정 운동사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주도적인 역할과 그 의미’에 대한 영상 시청과 중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교육으로 ‘온라인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권혁채 법무관의 강의를 있었다. 강의 후 학교폭력을 주제로 강신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역할을 맡아 형사모의재판을 공연하는 시간도 가졌다. 온라인상 게임과 SNS를 통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

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강의와 친구들이 직접 연기하는 형사재판을 관람하면서 어려운 법률용어와 형사재판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잘 몰랐던 법률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고 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는 교육 후기가 있었다. (관련내용 29면)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사법연수원 전문분야실무수습

(5월 30일 ~ 7월 22일)
김범준 (사법연수원 46기)

●동국대 현장실습 연수

(6월 27일 ~ 8월 22일)
이예진, 한지혜, 송희원, 신소현,
양예지, 임동균, 장재원, 이재훈,
이준성, 이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6월 27일 ~ 7월8일)
김주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임상실습

(6월 27일 ~ 7월 21일)

하지은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연이, 황현정,
박소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서지연 변호사,
오동준, 권혁채 법무관

출장법교육 및 상담

7월 8일
학교폭력예방교육 - 호곡중
김진영 상담위원

7월 25일
출장상담 - 용강노인복지관
복미영 상담위원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7월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사건 조정을 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7월 6일과 19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하였다.

곽배희 소장, 법무부 방문 인권국장 등과 환담

본소 곽배희 소장은 7월 1일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했으며, 7일에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관악구청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과 가족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26일에는 법무부를 방문하여 권정훈 인권국장, 문성인 인권구조과장 등과 상담소 사업 전반에 관해 환담을 했다.





지부소식

강릉지부

7월 4일, 12일, 13일 아야진초등학교 교직원 등에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총 3회(83명) 실시하였다. 11일, 25일, 26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가사조정,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형사조정을 실시하였다.

구리지부

7월 11일, 12일, 15일, 18일, 19일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 형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이경숙, 정수경, 김효경, 정이수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군산지부

7월 6일, 7일, 20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가사조정, 자녀양육교육을 실시하였다.

대구지부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으로 7월 9일~10일 가족캠프를 1박 2일로 안동 고택 이상루에서 실시하였고, 15일 “상담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9일, 23일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주말프로그램으로 “협력하는 부모”를 실시하

였다. 장준범, 광경화, 류경재, 구은미, 이재석, 신성욱, 박기대, 김중기, 서수연, 윤용원, 이승익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총 10회 실시하였고 가사재판상담을 총 7회 실시하였다. 광주시법원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총 6회 실시하였다. 이수연, 임재훈, 정수경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기관지정사업 협의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 양육에 관한 의무면담을 총 13회 실시하였다. 7월 7일, 21일, 28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동식 가정폭력상담을 실시하였다. 김소이, 김정혜, 김현수, 박지훈(성남), 박지훈(수원), 양승철, 임용호, 전태우, 차명심, 한두환, 한승일, 황미옥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전주지부

7월 8일, 11일, 18일 25일 전주지방법원 가사조정, 협의이혼상담을 실시하였다. 8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22일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가정상담지, 상담소 리플릿으로 홍보를 하였다.

제주지부

황인철, 박현민, 백신옥, 김성훈, 김수진, 최호웅, 조준범 변호사가 법률

상담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7월 14일 상담소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 대상 “통일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재경, 김창진, 박진석, 최유나, 이동건, 노문기, 임유정, 여지은, 박은정, 장경아, 이영주, 박수열, 이수희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7월 21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창원·마산지부

7월 21일, 26일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을 실시하였고, 27일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남상업, 전철우, 민태식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청주지부

6월 2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7월 8일 2016년 충북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홍종호 소장이 양성평등발전 유공자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춘천지부

7월 4일, 5일, 7일, 12일, 18일, 19일, 21일, 22일, 25일, 26일 석사동 외솔경로당 노인대상 등에 가정폭력 법률구조지원 및 생활법률강좌를 총 10회 실시하였다.

2016년 6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6년 6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3,523건으로 본부가 6,593건, 지부가 6,930건이었다.

본부는 6,099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303건·소장 등 서류작성 144건·소송구조 47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6,063건·화해조정 740건·소장 등 서류작성 53건·소송구조 74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099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6년 5월에 비해 남녀관계(2.0%→2.3%), 부부갈등(3.2%→4.0%), 이혼(24.4%→25.5%), 위자료·재산분할(11.2%→12.1%), 친권·양육권(5.6%→6.9%), 입양(1.2%→1.3%), 유언·상속(5.7%→6.2%), 개명(0.2%→0.3%), 파양(0.1%→0.2%)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099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463건(24.0%), 전화상담 4,367건(71.6%), 통신 및 인터넷상담 268건(4.4%),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16년 7월 본부 상담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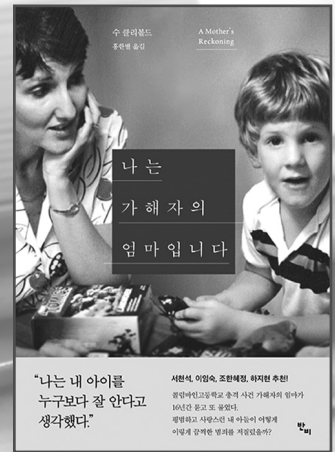
총상담 7,213			
법률상담 (6,706)			
면접	전화	통신	지상
1,376	5,115	214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274		171	62

* 2016/7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52,630건

지 부	총상담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6,593	1,463	4,367	268		지상 1	6,099	303	144	47
강릉 (033) 652-9555	153	120	19				139	10	1	3
거제 (055) 633-7636	292	291	1				292			
광주 (062) 672-6011	77	34	43				77			
구리·남양주 (031) 551-9976	322	222	71				293	21	4	4
군산 (063) 442-1560	131	55	65				120	8		3
대구 (053) 745-4501	560	286	25			출장 123	434	121	2	3
대전 (042) 520-5258	290	46	241				287		3	
제주 (064) 753-9421	292	112	126			출장 6	244	44		4
동해 (033) 535-0188	95	45	47			출장 2	94			1
목포 (061) 273-2514	28	1	26				27	1		
부천 (032) 667-2314	304	91	181	3			275	29		
성남 (031) 707-6661	345	202	64	3			269	65	4	7
수원 (031) 243-4600	464	140	172	3		출장 71	386	71	2	5
순천 (061) 753-9910	151	55	86				141	8		2
충구 (02) 2238-6554	337	249	86				335			2
안동 (054) 856-4200	78	14	23			출장 1	38	40		
울산 (052) 246-9568	165	50	105				155		9	1
익산 (063) 851-5113	252	56	182	3		출장 7	248		1	3
인천 (032) 865-1120	351	193	123				316	17	5	13
전주 (063) 244-2930	576	265	118	169	18		570		1	5
정읍 (063) 535-3705	120	48	54				102	17	1	
진주 (055) 746-7975	144	34	65				99	37		8
청원·마산 (055) 261-0280	294	139	69	6			214	77	1	2
청주 (043) 257-0088	401	267	75				342	51	8	
춘천 (033) 257-4688	274	57	30			출장 83	170	103	1	
태백 (033) 554-4004	85	32	33			출장 20	85			
평택·안성 (031) 611-4251	131	46	58				104	16	10	1
제천 (043) 644-5690	112	34	73				107			5
포항 (054) 283-7555	106	18	82				100	4		2
지부총상담	6,930	3,202	2,343	187	18	출장 313	6,063	740	53	74
총 상담	13,523	4,665	6,710	455	18	출장 313 지상 1	12,162	1,043	197	121

**2016/6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54,826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수 클리볼드 지음, 홍한별 옮김
반비, 2016

아이가 죽었다.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여 버렸다. 17살 아들이 살인과 자살로 세상을 버린 후, 그 엄마의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엄마의 그 후 16년의 시간을 들여다보는 독서는 실로 힘겨웠다.

미국 내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첫 총격사건으로, 이후 벌어지고 있는 교내 총기난사 사건의 모델로 거론되면서 총기 관련 다큐멘터리와 영화로도 만들어진 1990년 4월 콜롬바인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의 두 범인 가운데 한 명인 딜런 클리볼드의 엄마가 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는 아이가 태어나서 사건을 벌이기까지의 17년, 또 사건 발생 후 17년, 총 34년간의 일을 정리하고 있다. 밑줄을 그으면서 책을 읽었다면 2/3는 밑줄로 채워졌을 것 같은 이 책의 극히 일부분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책 소개를 대신하고자 한다.

사건 전 대학에서 장애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 등을 담당했던 수 클리볼드는 현재 우울증 조기 발견 및 자살 예방에 관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툼과 나는 다정하고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부모였고, 딜런은 에너지가 넘치고 애정이 많은 아이였다. 늘 염려하며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를 찾기를 빌어야 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우리는 딜런을 ‘햇살’이라고 불렀다. 딜런의 금발머리가 후광처럼 빛났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딜런에게는 매사가 힘들지 않게 잘 풀렸기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딜런이 내 자식이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했고 온 영혼과 심장으로 딜런을 사랑했다.”

“그 뒤 몇 달, 몇 해 동안 나는 아들에 대해 내가 몰랐던 사실들을 수도 없이 마주하게 되었다. 판도라의 상자가 바닥이 나지 않을 듯했다. 나는 남은 평생을 내가 알던 아이와 딜런이 한 행동을 하나로 합치는 일로 보내게 될 것이었다. 그날 밤

이, 내가 알던 딜런의 모습 그대로를 내 마음속에 담고 있을 수 있는 마지막 밤이었다. 사랑스러운 아들, 동생, 친구의 모습으로.”

“언론에서 부모로서 우리를 묘사한 것 중에 그나마 우호적인 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존재감이 없고 쓸모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증오로 가득한 인종주의자 아들을 알면서도 덮어주었고, 지붕 아래 무기를 쌓아놓고 있는데도 못 본 척해서 공동체 전체를 위협에 빠뜨렸다고 했다. 왜 우리를 비난하는지 이해가 가고도 남았다. 나라고 해도 그런 아이의 부모에 대해서는 끝없는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내가 그 아이의 부모가 아니었다면. 증오했을 것이다. 당연히 부모 탓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부모로서 우리를 묘사하는 두 가지 상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심란하다는 것을.”

“에릭의 엄마가 에릭은 졸업하고 무얼 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나는 딜런은 가을에 대학에 갈 거라고 자랑을 했다. 속으로는 딜런이 에릭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만심이었는지 생각할 때마다 영원히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다.”

“딜런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산을 움직여 서라도 고치려 했을 것이다. 에릭의 웹사이트나 총기에 대해 알았다면, 딜런의 우울증에 대해 알았다면 다르게 대응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아는 아이를 기르기 위해 내가 아는 최선의 방식으로 길렀고, 내가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 아이를 기르는 최선의 방식은 알지 못했다.”

이 숙 현 편집부장

2016년 8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관련 비디오 시청
- ▶ 일정 : 매주 금요일 오후 2:00 ~ 3:30
- 2단계 : 집단 심리상담
- (대상 : 본소 법률상담 내담자, 사전 예약 필수)
- ▶ 일정 :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8월 휴강)
- ▶ 강사 : 김영준 소장(세은심리상담연구소)

한마음 가족캠프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형성을 위해 온 가
족이 참여하여 배우고 즐기는 1박2일 무료 가족동반
프로그램

- ▶ 일시 : 2016년 8월 27일(토) 오후4시~28일(일) 오후1시
- ▶ 대상 : 부부 동반 참석이 가능한 신청자
- ▶ 장소 :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 ▶ 신청방법 : 전화로 수시접수 중(참여를 원하는 분은 미리 배
우자와 상의하여 참여의사를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시달리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
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16년 9월 23일(토) ~ 24일(일)
- ▶ 대상 : 비혼모 가정
- ▶ 장소 : 상담소 · 용인 에버랜드
- ▶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
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
공개강좌

- ▶ 일시 : 2016년 1월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2시 ~ 4시(8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 의학과 원장)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9월 22일(목)	자기보호 위한 자기주장과 거절 공포
10월 27일(목)	친밀감, 관계의 유형 그리고 심리적 거리
11월 24일(목)	외도의 유형과 대처
12월 22일(목)	임상 예를 통한 부부갈등 상담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시달리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
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한마음 가족캠프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형성을 위해 온 가
족이 참여하여 배우고 즐기는 1박2일 무료 가족동반
프로그램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
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
공개강좌